

삼성 5G 날개 달았다... 망 설계·구축전문 美기업 인수

SAMSUNG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미국 5G·4G LTE 망설계·최적화 전문기업 텔레월드 솔루션즈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를 통한 글로벌 이동통신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02년 설립된 텔레월드 솔루션즈는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업자, 케이블 방송사 등에 망설계·최적화·필드테스트 등 전문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텔레월드 솔루션즈는 대량의 필드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검증분석 자동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실내외 기지국 최적 위치 선정, 무선신호 간섭원 추출, 기지국 셀 설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대비 50%에서 최대 90%까지 절감해 준다.

삼성전자는 인수 완료 이후에도 텔레월드 솔루션즈 현재 경영진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이동통신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美 텔레월드 솔루션즈와 인수계약 체결
북미 점유율 확대 등 글로벌 공략 박차

인수 후에도 現 경영진이 사업 운영키로
유연한 시장 대응, 시너지 극대화 기대감

삼성전자가 미국 5G·4G LTE 망설계·최적화 전문기업 텔레월드 솔루션즈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전 세계를 무대로 5G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토이미지

5G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600~800MHz 저대역, 2.5~4.9GHz 중대역, 24~39GHz 초고주파수대역 등 이동통신에 활용되는 주파수와 기지국이 다양해지고, 망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망설계·최적화 기술이 5G 커버리지 확보의

핵심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전경훈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선도시장인 미국에서 기술과 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버라이즌, AT&T, 스포린트 등에 5G·4G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며 "세계 5G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텔레월드 솔루션즈의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사 시너지를 극대화해, 2020년 북미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텔레월드 솔루션즈 설빈 제라미 CEO는 "5G 상용화가 확대되면서 통신 시스템의 성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망설계, 구축, 최적화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북미 이동통신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일원이 돼 매우 기쁘며, 텔레월드 솔루션의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서비스 노하우로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자율주행로봇이 비품 전달하고 수술영상 실시간 공유

>> 1면 '시병실·VR 의료 협진'서 계속

싱크캠으로 고품질 영상 중계
로봇으로 비품 운송해 감염 ↓

◆교수님 뒤통수만 봤는데...

교육장의 수술 지도도 원활해졌다. 기존 의과대학 학생과 수습 의료진의 수술 현장 교육 진행 시 수술 집도의와 지원 간호진, 수술 장비 등이 복잡하게 위치한 공간 문제로 인해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점이 교수진들의 고민이었다.

KT는 '5G 수술 지도'를 삼성서울병원과 개발해 한정적인 수술실에서 벗어나 많은 수습 의료진이 모인 강의실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G를 이용한 싱크캠으로 수술 중인 교수 시점의 영상과 음성을 고품질로 실시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지난 9월 있었던 5G 스마트병원 MOU 시연회에서 VR과 AR을 통한 수술 교육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KT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실제 5G 네트워크를 통해 수술실의 상황을 중계하는 장면을 시연하기도 했다. 수술실 안 전경을 보여주는 고정캠과 수술 집도의가 싱크캠으로 환자를 수술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최준호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130년이 지나도 교수님 뒤통수만 보는

수술 참관이 이어져왔다"며 "5G를 이용한 외과 혁신으로 보편적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G 자율주행 운반 로봇

수술실 5G 자율주행 운반 로봇은 수술 업무 효율화를 위해 개발됐다. 수술 시에는 감염물이나 의료폐기물 등이 반복적으로 대량 발생하게 된다. 이를 5G 자율

주행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고 비품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한 의료 지원서비스다.

특히 감염된 물품을 사람이 옮기다 침습적인 접촉 등으로 발생하는 2, 3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족한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의료 업무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KT는 설명했다.

KT와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5G 혁신 의료서비스 개발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한 환자 케어 서비스 개발과 5G 기반 의료행위 혁신, 병원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5G 서비스 개발 등 올해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KT 기업사업부문장인 박윤영 부사장은 "KT 5G를 바탕으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이동성과 의료행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더욱 나아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혁신병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어린이 영어공부 AR로' LGU+, AR교육 서비스

LG유플러스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동화, 자연관찰, 과학 등의 콘텐츠를 3D 증강현실(AR)로 생동감있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교육애플리케이션(앱) 'U+아이들생생도서관'을 17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U+아이들생생도서관은 'DK', '펍퀸랜덤하우스', '옥스퍼드' 등 전 세계 유명 아동도서 출판업체 24개사와 제휴해 영어도서 110편을 3D AR로 제작, 독점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세부터 9세 어린이들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내용에 따른 카테고리별 메뉴 구성을 했다. 이와 함께 알파벳 학습 시작 단계부터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까지 수준에 맞춰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가 책을 읽다 모르는 영단어가 나와도 앱 내에서 제공하는 사전기능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그림책으로는 자녀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관찰, 과학도서를 3D 입체복합으로 즐길 수 있어 어린이 영어학습에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책 속 단어들의 스펠링 순서 맞추기, 주인공 그리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메모리 게임 등 도서 내용과 연계된 8종의 게임도 즐길 수 있다.

/김나인 기자

현대건설, 새해부터 낭보... 카타르·싱가포르서 1.5兆 수주

카타르 플라자타워 1.2兆 등

현대건설이 1월에만 중동 및 남아 지역의 카타르와 싱가포르에서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건축 공사를 수주하며 올해 본격적인 해외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14일 카타르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발주한 총 약 6093억원 규모의 루사일 플라자 타워 플랫3 공사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새해 첫 해외수주 포문을 연 루사일 플라자 타워 플랫4(총 6130억원)에 이은 수주로 두 공사 금액을 합쳐 약 1조 2000억원(미화 10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건축 공사다.

현대건설은 지난 7일 싱가포르 스포츠청이 발주한 2700억원 상당의 풍골 스포츠센터의 시공사로도 선정돼 연초 해외 건축부문에서 총 1조 5000억원의

수주 행진을 이어갔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단독 수주한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플랫3 공사는 지하 5층, 지상 7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과 상가, 주변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후 34개월, 2022년 말 준공이 목표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개최될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과 인접해 있다.

싱가포르에서 수주한 풍골 스포츠센

터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 현지 업체와 공동 수주했다. 현대건설 지분은 1900억원이다. 현대건설은 4만 81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2만 3617㎡ 규모의 스포츠센터와 야외경기장을 신축하게 된다.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며 오는 2023년 1월 준공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선진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현대건설의 우수한 해외 사업실력 및 수주 네트워크 확장 노력이 연이은 수주 결실로 빛을 발휘해 갔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